

자연화된 인식론과 인식 규범의 자연화

김 기 현 (서울대 철학과 교수)

주 제 인식론, 자연주의

주요어 전통적 인식론, 자연화된 인식론, 콰인의 인식론, 규범성, 인식 정당성

요약문 이 논문은 자연화된 인식론의 의의를 두 측면에서 분석한 후 그 함축과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의 자연화된 인식론의 첫째 특성으로 인식 규범의 선형성에 대한 부정율, 둘째 특성으로 지식 분석에 있어서의 기계론적/인과적 관점을 제시한다. 둘째 특성과 관련된 논쟁을 점검한 후, 이와 관련된 선형성의 논쟁을 자연화된 인식론과 관련된 핵심적인 논쟁점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 논쟁의 함축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기존의 자연화된 인식론의 기본 이념--즉, 규범의 전적인 자연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대부분의 인식론자들은 '자연화된 인식론'이 현대 인식론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새로운 조류라는 데에 주저 없이 동의한다. 한편, 그 영향력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면서도 정확히 자연화된 인식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는 상당한 혼란이 있다. 필자는 인식론의 자연화에 공감하기에 때론 자연화된 인식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글을, 때론 자연화된 인식론을 옹호하는 글을 쓰기도 하였다.(1995, 1997) 아마도 동조적 경향이 단순히 소개하는 외양을 쓰고 나타난 글의 논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김도식 교수의 글을 보면 '아마도'가 아니라 분명히 영향을 미친 모양이다. 인식론에 관한 전통적 경향에 공감하는 김도식 교수는 단순한 소개를 목적으로 쓰여진 필자의 글에 대하여 대체로 여러 각도에서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김도식

교수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자연화된 인식론의 함축과 의미를 좀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김도식 교수의 비판에 대답함과 동시에 필자 나름대로 생각한 자연화된 인식론의 문제를 제시하기도 할 것이다.

1. 전통적 인식론

자연화된 인식론을 이해하는 가장 편리하고 정확한 방법은 자연화된 인식론을 기존의 인식론에 대한 반발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럼 자연화된 인식론은 전통적 인식론의 어떤 성향들에 반발하는가? 그 첫째 성향은 자연과학과 인식론의 단절이다.¹⁾ 인식론의 본격적인 태동기이자 인식론을 제 1철학으로 간주한 근세에 인식론은 자연과학의 정초를 놓는 학문으로 간주되었다. 사실을 탐구하는 사실과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학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전통적 인식론의 두 가지 특성이 따른다: 첫째는 인식론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답하여 인식의 규범을 제시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이러한 인식 규범에 대한 질문은 경험적 방식으로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경험적 방법을 사용하는 사실과학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옳고 그름을 판정하고자 하는 인식론이 스스로 경험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험성이 흔히 경험적인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며, 따라서 인식론은 자연스럽게 선험적 학문으로 간주되었다. 규범성과 선험성을 결합하여 전통적 인식론의 이념을 요약하면, 인식론은 인식 규범을 선험적으로 탐구하여 사실과학의 정초를 놓는 또는 감독하는 학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화된 인식론이 반발하는 전통적 인식론의 둘째 특성은 반성주의적 성향이다. 전통적 인식론은 눈앞에 문제가 되는 한 믿음을 놓고 받아들

1) 필자는 이에 대하여 다른 곳에서 상세히 서술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아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상세한 논의를 위하여는 김기현 (1997)을 참고하라.

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식 주관의 그림을 갖고서 인식론의 문제에 접근한다. 이런 모델이 테카르트에서 나타나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고, 많은 근세의 인식론자들이 명증한 증거를 고찰하여 한 믿음을 받아들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2. 자연화된 인식론: 반규범성 또는 반선험성

‘자연화된 인식론’이라는 표현을 철학에 처음 도입한 사람은 콰인 W. v. O. Quine이다. (1969) 그는 인식론이 자연과학을 정초하는 선험적 학문이 되어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론의 생각을 맹렬히 공격한다. 이 공격은 두 전선에서 진행된다. 첫째 전선은 인식 규범에 대한 판단의 선험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Quine 1953, 1966) 콰인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의 체계는 하나의 유기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관한 관찰 믿음은 이 체계의 주변에 위치하며, 이론적 믿음은 관찰 믿음보다 중앙 쪽에 위치하여 폭넓은 경험들과 간접적인 관계를 맺는다. 콰인은 우리가 비경험적이라고 간주하는 믿음들도 경험과 관련을 맺는 전체적 체계 속에 속하여 있다고 주장한다. 1 더하기 1은 2다,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와 같이 우리가 경험과 무관하다고 간주하는 믿음들은 우리의 믿음 체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로서 경험과 관련되는 방식이 극도로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지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우리의 모든 믿음들은 경험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수정가능한 것들이며, 단지 이들 사이에는 구체적 경험들과의 연관성의 직접성의 정도, 그에 따라 기존의 믿음 체계에 도전이 되는 경험이 주어졌을 경우에 얼마나 쉽게 파기될 것인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²⁾ 이렇게 되면, 자연과학으로부터 원리적으로 구분되어 선험적 방식으로 인식 규범을 구성하여 자연과학의 정초를 놓고자 하는 전통적 인식론의 이념은 근

2) 이상의 콰인의 견해는 다음의 논문들에 걸쳐서 나타난다: Quine (1953, 1966).

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둘째 전선은 인식론이 자연과학의 정초를 놓는 학문이라는 이념은 실패하였다는 지적이다. (Quine 1969) 인간의 사실적 인식 과정을 무시한 채 안락 의자에서 인식 규범을 구성하고 그에 의하여 지식 체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인식론으로는 데카르트와 논리실증주의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이 실패하였음은 역사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것이다.³⁾ 따라서 인식론은 자연과학의 정초를 놓는 일을 포기하여야 하고, 철학은 인식론의 짐을 심리학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콰인은 주장한다. (Quine 1969: 75-6). 이러한 고려를 통하여 콰인은 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는 전통적 인식론의 이념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인식론을 인지심리학의 한 장으로 편입시킬 것을 제안한다.

3. 자연화된 인식론: 기계론적 모델

자연화된 인식론이 구체화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계기는 콰인이 자연화된 인식론을 주창할 즈음에 인식론의 영역 내에 새로이 형성되기 시작한 움직임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골드만 Goldman (1967, 1976), 드레츠키 Dretske (1971, 1981), 노직 Nozick (1981), 암스트롱 Armstrong (1973) 등에 의하여 비슷한 시점에 나타난 경향으로 지식을 일종의 자연적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다.⁴⁾ 예를 들어, 골드만(1967)은 한 믿음이 사실과 적절한 인과 관계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믿음이 지식일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암스트롱(1973, 166-171)은 지식에 대한 온도계 모델을 제시하면서, 한 믿음이 지식인가 아닌가는 그 믿음을 구성하는 인지 체계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한 결과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온도계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3) 데카르트는 명석판명한 믿음에 근거하여 지식을 재구성하고자 하였고, 논리실증주의는 경험적 확실성을 지닌 감각 자료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재구성하려 하였음은 잘 알려져 있다.

4) 이를 위하여는 줄고(1998), 3장을 참고하라.

일정한 온도를 기록하면, 이는 외부 온도에 대한 신빙성 있는 지표가 되듯이, 우리의 지각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외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빙성 있게 표상하면 그것이 지식이 된다는 것이다. 지식에 대한 이러한 입장을 기계론적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움직임은 반성적 모델에 의거한 전통적 인식론의 관점에서 커다란 일탈로 보일 수 있다. 한 믿음의 지식 여부는 인식 주관의 반성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단지 그것이 자연계 내에서 사실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는가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자연화된 인식론의 혁신적 성향을 위한 환경을 구성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아직 반성적 모델에 대한 정면 공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반성적 모델은 인식정당성의 분석에 적용되는 반면, 기계론적 모델은 지식을 분석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때의 지식은 인식정당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자연적 과정을 통한 기계론적 모델을 인식론의 논의에 도입하기는 하면서도, 아직도 인식정당성과 관련하여서는 반성적 모델이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이들이 갖고 있었기에 인식정당성을 지식의 밖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새로운 시도와 더불어 지지를 얻은 접근법은 그 영역을 넓혀 가게 마련이다. 폴드만 (1979)은 이제 기계론적인 모델을 인식정당성의 문제에 정면으로 적용하여 인식정당성에 대한 이론을 구성한다. 과정 신빙주의 process reliabilism로 알려진 이 입장에 따르면, 한 믿음의 인식정당성은 그 믿음이 기초한 인지과정의 신빙성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시각은 대체로 참인 믿음을 산출하는 신빙성 있는 인지 과정이므로, 그에 의하여 산출된 믿음은 인식적으로 정당하며, 역측은 그와 달리 신빙성이 없는 인지 과정이어서 그에 의하여 산출된 믿음은 인식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기계론적 모델이 이제 인식정당성에 까지 확장 적용되는 단계에 이르면 인식론은 전통적 이념과 멀어져 가면서 동시에 자연과학과 더욱 긴밀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제 믿음들의 인식정당성을 규명하는 일은 우

리 인간의 인지 체계 내에 어떤 인지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사실적으로 해명하는 것과 아울러 이들이 세계와의 관계 하에서 얼마나 신빙성 있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사실적 탐구까지도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이 사실 과학의 영역에 속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4. 증거론의 한계

3에서 우리는 한 믿음의 인식정당성을 그것을 야기한 인지 과정의 함수로 보는 견해가 자연화된 인식론의 조류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적 견해를 대변하는 증거론evidentialism의 한 문제점과 대비되면서 더욱 강화된다. 증거론에 따르면 한 믿음의 인식정당성은 인식 주관이 그 시점에 갖고 있는 증거의 총량에 의하여 전적으로 결정된다. 한 믿음의 인식정당성은 그와 관련이 있을만한 증거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문제의 믿음이 참일 확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의하여 전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어떠한 사실적 탐구도 필요하지 않고, 단지 논리적 분석으로 대표되는 선형적 탐구로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한 명제를 믿을만한 온갖 훌륭한 증거들을 모두 갖고 있지만, 막상 그 명제를 소리가 좋아서 믿는다고 하자. 이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은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 믿음이 주어진 증거들을 원인으로 하여 구성된다 하더라도 그 믿음에까지 도달하는 인과의 과정이 이상한deviant 것이라면, 그 믿음은 그 증거에 근거하여 정당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주어진 증거가 문제의 믿음을 위한 훌륭한 증거라 하더라도, 이 증거로부터 터무니 없는 다른 믿음에 도달한 후에 이로부터 또 다시 터무니 없는 추론을 통하여 문제의 믿음에 도달한다면, 이는 최종적 믿음이 그를 위한 훌륭한 증거를 최초의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할 수 없다. 이상의 고찰은 순수히 증거만을 고려하는 인식정당성에 대한 증거론은 불완전한 이

론이며, 인식정당성에 대한 이론은 믿음이 어떤 인지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었는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5. 요약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 본 자연화된 인식론의 특성은 자연과학에 우선하면서 그 초점을 놓는 기초 학문으로서의 인식론의 이념의 퇴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전통적 인식론이 갖는 선험적 규범성의 약화와 직결되어 있다. 믿음의 인식정당성을 그 믿음을 산출한 인지 과정의 특성, 예를 들어 그 인지 과정이 거짓 믿음보다 더 많은 참 믿음을 산출하는가 등에 의존한 것으로 보는 기계론적 관점 아래에서는, 인식 규범에 대한 기술은 우리의 구체적 인지 과정에 대한 사실적 고려와 그 인지 과정들의 다양한 사실적 측면들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만으로도 인식적 규범의 해명이 자연과학적인 고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이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과인은 이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규범성 자체를 인식론으로부터 배제하여 인식론은 이제 단순히 다양한 인지적 과정의 기술에 만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인식론을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구도 하에서는 인식론과 자연과학의 연속성은 부연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 된다.

6. 반론, 대답, 발전

이 장에서는 자연화된 인식론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김도식 교수의 논문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김도식 교수는 필자가 자연화된 인식론의 두 줄기로 제시한 규범의 선험성에 대한 도전과 기계론적 관점의 도입 모두를 비판한다. 그러나 그의 논의는 주로 기계론적 관점의 도입에 맞추어져 있고, 선험성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는 본격적으로 상세하게 논의하기 보다는 지나치면서 반대를 표시하는 정도에 머물

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기계론적 관점과 관련된 김도식 교수의 비판에 대하여는 비교적 간략하게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규범의 선택성과 관련된 부분이 인식론의 더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규범의 선택성과 관련된 문제를 더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⁵⁾

명제인가 인지 과정인가?

필자는 3과 4에서 자연화된 인식론의 한 주요한 경향은 기계론적 관점을 인식정당성의 논의에 도입한 것이며, 이는 인식정당성에 대한 전통적 견해인 증거론의 결함을 극복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그 요지는, 한 인식자가 한 믿음을 위한 온갖 훌륭한 증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엉뚱한 근거에서--예를 들어, 그 믿음을 이루는 문장의 소리가 좋아서--그 믿음에 도달하면, 그 믿음은 인식적으로 정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믿음의 인식정당성의 일차적 평가 대상은 한 믿음을 산출하는 인지 과정이어야 하며, 따라서 인식정당성을 단순히 인식 주관이고 그 시점에서 갖고 있는 증거의 총량에 의하여 결정하는 증거론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증거론에 공감하는 김도식 교수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이러한 문제를 증거론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식적 정당성’이 적용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증거론에서 말하는, 인식적 정당성의 대상은 실제로 믿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명제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인식적으로 정당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을 실제로 형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적절한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 엉뚱하게 문장의 소리가 좋아서 믿음을 형성한 경우에도 여전히 인식적으로 정당할 수 있는가? 그렇다. 왜냐하면 인식적 정당성은 증거와 믿음의 대상이 되는 명제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5) 물론 그렇다고 기계론적 관점의 도입이 자연화된 인식론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지 믿음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의혹이 증폭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식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 증거론에서도 그 사람에게 인식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단 그것이 '인식적 정당성'의 논의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아니라는 것뿐이다.

이러한 입장은 전통적 인식론의 입장에 선 인식론자들에게서 널리 나타난다.⁶⁾ 김도식 교수도 그러하고 대부분의 전통적 인식론자들은 믿음의 인과적 발생 상의 결합을 인식적 결합으로 인정하되, 이를 인식정당성과 관련된 결합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위의 인용문 이후의 논의에서 나타나듯이 김도식 교수는 이 결합을 믿음과 관련된 결합으로 간주하며, 폴리Richard Foley(1987)는 과정 신빙주의의 분석은 전통적인 인식정당성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요지는 인과적 관점에서 볼 때 잘못 발생한 믿음은 인식적 결합이 있으나, 이를 위한 평가의 영역은 인식정당성이 아닌 다른 곳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 대한 필자의 첫 반응은 승리가능성이 회박한 구두적 논쟁이라는 것이다. 우선 위의 논의가 단순히 구두적 논쟁으로 보이는 이유는 인식정당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론적 표현이어서 우리는 선명한 직관을 갖고 있지 못하고, 따라서 인과적 고려가 인식정당성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의 반응이 승리가능성이 회박해 보이는 이유는 인식적 평가와 관련된 증거적 고려와 발생적 고려의 두 차원이 있다는 것은 납득할 만 하지만 인식정당성을 발생적 고려를 제외한 증거적 고려에만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명제가 인식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리고 김도식 교수가 명제의 정당성으로 의도하는 것은 인식자가

6) Foley(1987): 175-186, Feldman and Connee (1985). 다만 폴리는 명제적 합리성Propositional Rationality과 사고적 합리성Doxastic Rationality을 구분하고서 두 가지 모두에 합리성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의 명제를 위한 적절한 증거를 갖고 있어서, 이 증거에 의거하여 문제의 명제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하다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교수가 의도하는 명제의 인식정당성은 실은 잠재적 인식정당성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따르며, 현실적 인식정당성은 여전히 실제적 믿음에 남겨져야 할 것이다.

둘째 반응은 설령 인과적 발생과 관련된 고려가 인식정당성의 개념과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인과적 발생을 통하여 규명되어야 할 별도의 인식적 평가의 영역이 있음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자연화된 인식론은 성과를 올린 셈이 된다는 것이다. 자연화된 인식론은 인식적 평가를 자연화하는 작업이고, 이 과정에서 그것이 인식정당성으로 포섭되든 기타의 영역에 포섭되든 인과적 고려에 의하여 분석될 평가의 영역이 있음을 보이는 것은 평가의 자연화라는 관점에서 명백히 진보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보건데, 인과적 고려를 증거적 고려로부터 분리하는 시도가 갖는 유일한 의의는 전통적으로 논리적 분석에 의하여만 주어질 수 있으리라고 간주된 증거 관계를 인과적인 요소로부터 분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자연화--즉, 사실적 서술에 의하여 규정--하기 어려운 규범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 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러한 규범성의 논의를 정면으로 다루기로 하자.

〈인식 규범의 운명〉

완전한 대체론인가?

자연화된 인식론에 대하여 가장 많이 제기되는 반론은 규범성을 인식론으로부터 완전히 추방하여 인식론을 인지 과정을 기술하는 인지심리학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지나치다는 것이다. 김도식 교수도 이러한 정서를 공유하면서 과인의 대체론⁷⁾에 저항한다. 김교수는 “나는 내가 믿음을

7) 이 표현은 콘브리쓰Hilary Kornblith(1985)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형성해야 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믿음을 형성하지는 못했다”라는 말이 의미 있게 사용되는 한, 전통적 인식론이 자연주의적 인식론으로 대체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필자는 이러한 김도식 교수의 주장에 동의한다. 다만 김교수가 이 부분을 다소 인상주의적으로 직관에 호소하면서 지난 것 같아 그 논의를 좀더 강화하고자 한다. 콰인의 대체론 논증이 갖는 심각한 문제는 그 전제의 빈약함이다. 2에서 보았듯이 콰인이 대체론을 옹호하는 논거로 사용하고 있는 전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분석-종합 구분의 비판이고 둘째는 기존의 재구성적 규범주의적 인식론의 실패다. 우선 첫째 전제가 대체론을 옹호할 수 없음을 자명하다. 분석-종합 구분의 비판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의미 있는 진술은 모두 경험적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분석-종합 구분의 비판으로부터 따르는 것은 인식적 규범에 관한 기존의 진술들은 (만약 이들이 참,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유의미한 진술인 한) 경험적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그들이 무의미한 진술로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콰인은 수학적 명제도 경험적 명제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그가 수학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수학자들은 그저 수학적 명제가 경험적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식론자들은, 콰인의 분석-종합 비판에 직면하여, 그저 선형적 반성에 의하여 주어진 것으로 생각한 기존의 규범에 관한 명제들이 고도의 추상적인 경험적인 명제임을 받아들이고 과거에 하던 대로 철학적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다. 만약 인식 규범에 관한 진술이 무의미한 진술임이 보여진다면, 인식 규범에 대한 진술은 추방되어야 하고 따라서 인식론은 더 이상 규범을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알기에는, 콰인은 어디에서도 이런 논증을 제시한 일이 없다.

전통적인 재구성적인 인식론이 실패하였다는 사실도 콰인의 대체론을 뒷받침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콰인이 고려하는 것은 확실성의 토대 위에 토대론적으로 지식을 재구성하는 인식론인데, 이는 매우 강한 형태의 인

식적 규범을 전제하고 있다. '인식적으로 정당한 믿음은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또는 의심 불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형태의 인식적 규범이 반성 없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강한 형태의 인식 규범을 포함한 재구성적 인식론이 과거에 실패하였다는 전제로부터, 인식적 규범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포기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확실성에 근거한 재구성적 인식론의 실패로부터 이끌어내야 할 결론은 규범의 포기가 아니라, 약화된 현실적 규범의 추구이었어야 한다. 사실 콰인 이후의 인식론은 이러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김교수가 지적하였듯이 콰인 자신도 이후에 규범성을 인식론으로부터 추방하는 극단적인 입장에서부터 물러서고 있다. (Quine 1990)

규범의 선형성과 자연화된 인식론

김도식 교수는 규범성을 인식론 내에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규범성과 관련하여 자연화된 인식론은 여전히 문제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김교수는 어떤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 김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경험적 탐구의 대상들 중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규범성을 부활시킬 수 있는지는 콰인에게 난제일 수밖에 없다. 경험적 탐구라는 것은 있는 사실에 대한 서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로부터 어떤 것은 믿어야 하고, 어떤 것은 믿어서는 안 되는가를 어떻게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답은 '진리에 대한 추구'나 '진화론에 바탕을 둔 적자생존' 등에 이바지하는 믿음이 믿어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답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이는 '진리'나 '생존'이 가치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러한 가치를 경험적인 탐구로 어떻게 밝혀낼 수 있다는 말인가? (필자의 강조)

김교수의 위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묵시적인 전제를 담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인식론의 규범성을 받아들이는 자연화된 인식론은 인식 규범이

사실적 탐구에 의하여 밝혀질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 만약 자연화된 인식론이 규범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 규범성이 선험적으로 규정되는 것임을 받아들인다면, 자연화된 인식론이 갖는 새로운 조류로서의 매력은 없다는 생각이 배경에 놓여 있는 듯하다. 김교수는 정당한 믿음을 산출하는 인지과정과 그렇지 못한 인지과정을 구분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순수히 선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식론은 여전히 자연과학에 선행하는 학문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식론은 새로운 것이 없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자연화된 인식론이 인식 규범의 선험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전통적 인식론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보았듯이, 자연화된 인식론에는 두 가지 경향이 섞여 나타난다. 선험적 규범성에 대한 회의적 눈길과 인식에 대한 기계론적 관점이다. 필자는 이 두 경향을 인식론과 자연과학을 가까이 접목시키는 두 독자적인 경향으로 제시하였다. 이 두 경향은 상호간 독자적일 뿐 아니라, 모든 자연화된 인식론이 두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⁸⁾ 따라서 전통적 인식론이 옹호하는 인식론의 선험적 규범성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인식에 대한 기계론적인 관점을 새로이 채택하면 이는 전통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새로운 자연주의적 이론이 된다. 자연화된 인식론의 대표적인 주자로 알려진 골드만이 이런 입장에 서있다. 골드만은 인식적으로 정당한 믿음을 산출하는 인지 과정의 기준으로 신빙성을 제시하면서, 이 기준 자체는 자연과학의 탐구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학의 고유한 방법으로 간주되어온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의 방법에 의

8) 더 나아가, 두 경향을 모두 지녀야만 자연화된 인식론이 될 수 있다던가, 또는 양자 중의 하나는 필수적이라든가 하는 것은 자연화된 인식론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구체적인 조건을 부가하여 자연화된 인식론을 규정하는 것은 조류를 지칭하는 자연화된 인식론의 개념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자연화된 인식론이란 어차피 특정 주제에 대한 구체적 이론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일정 분야를 탐구하는 방식에 관한 포괄적인 틀을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하여 주어진다고 주장한다.⁹⁾ 이러한 반성적 평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것은 경험과 무관한 어떤 선형적인 방법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골드만의 이론은 인식 규범의 선형성을 인정하면서도 인식정당성을 인지 과정의 함수로 봄으로써 인식정당성을 반성의 함수로 보는 전통적 이론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함과 동시에 인식론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인식 규범의 사실적 규정의 가능성

한편, 전통적 인식론의 핵심을 자연과학에 대한 정초를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론자들은 단순히 기계적 모델을 지식의 분석에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혁명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들은 인과적 고려를 인식적 평가에 도입하는 것은 전통적 인식론의 틀을 유지한 채 다소의 자연과학적 고려를 주변부에 첨가하여 세련화한 것 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들의 눈에는,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는 과연 인식적 규범이 사실적 서술을 통하여 규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인식적 규범의 내용이 순수히 선형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적 탐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질 때, 인식론은 전통적 인식론과 진정으로 결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연화된 인식론은 좌인의 극단적인 대체론보다는 온건하지만, 인식론의 모든 탐구 영역이 사실적 탐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임으로써 진정한 자연주의의 외관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자연주의의 입장은 규범의 내용 중에서 사실적 탐구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나타난다. 규범의 모든 내용이 사실적 탐구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입장에서부터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까지 넓은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¹⁰⁾

9) Goldman (1986, 66).

10) 규범의 모든 내용이 사실적 탐구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강한 입장은 규범의 역할

과학철학자들 중에서 인식 규범의 해명과 사실적 탐구를 연결시키는 경향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로단Larry Laudan(1987A, 1987B, 1990), 후커 C. A. Hooker(1987), 레셔Nicholas Rescher(1977), 보이드 Richard Boyd(1982) 등의 과학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인식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는 합리성, 지적인 책임 등의 본성에 대한 선험적인 반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식적 목표는 우리의 다른 목표들과 우리가 처한 세계의 우연적 특성들과의 연관하에서 결정된다. 인식적 목표가 이러한 사실적인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될 뿐 아니라, 그러한 인식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식적 방법에 관한 규범들 역시 사실적 고려를 통하여 결정된다. 한 인식적 방법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우리가 처한 세계에서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주어진 인식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공적인 수단인가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는 명백히 사실적 탐구의 영역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로단은 목표, 규범, 사실에 대한 탐구는 모두 동일한 천으로부터 재단된다고 주장한다. (Laudan 1990) 인식적 목표와 규범을 탐구하는 인식론은 자연과학의 연구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렇게 성립한 인식론은 자연과학의 탐구 방식에 대한 규제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론의 내용은 또 다시 자연과학의 발전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인식론이 자연과학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제시한다. 후커는 이 과정을 인식론은 과학적 방법을 평가하고, 과학은 인식론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역사적인 시간 축을 따라서 확장되는 나선형의 과정.(Hooker 1974, p. 415)으로 묘사한다.

앞 절의 인용문은 사실적 탐구를 통하여 인식 규범을 해명하는 위의 경향에 대하여 김도식 교수가 회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인식적 목표를 평가하는 것과 주어진 목표 하에서 한 인식 행위 또는 인식 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¹¹⁾ 즉,, 한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한가를 결정하는 것은 다음의

을 인식론 내에서 인정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규범을 추방하는 좌인의 대체론보다는 온건하다.

두 단계를 필요로 한다:

- A. 인식적 목표는 무엇인가?
- B. 주어진 인식 행위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데 기여하는가?

A가 결정되었다는 조건하에서, B를 결정하는 것은 공학자 또는 자연과학자의 문제로 철학자의 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어진 행위가 일정한 목표에 기여하는가의 결정은 철저히 사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A에 관하여는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 이미 보았듯이, 골드만은 이것은 선형적 방식인 반성적 평형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으로 보는 반면, 앞에서 본 과학철학자들은 인식적 목표가 사실적이고 우연적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김도식 교수가 제기하는 회의가 의미있는 것이라면, 인식적 목표를 사실적 고려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에 대한 회의로 해석되어야 한다.

인식적 목표가 사실적 탐구의 대상인가, 아니면 이는 선형적으로 해명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자연화된 인식론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¹²⁾ 앞에서 소개한 과학철학자들의 논의에서 시사된 바와 같이, 인식적 목표에 대한 자연주의자들의 논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인간의 삶에 중요한 기초적이면서도 비인식적인 가치를 제시하고, 인식적 가치는 이로부터 파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인식적 가치의 토대를 구성하는 이런 비인식적 가치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후보는 '재생산과 번영'이라는 진화론적 가치

11) 인식론자들은 참을 극대화하고 거짓을 극소화하는 것, 또는 참에 도달하고 거짓을 피하는 것을 인식적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별적인 믿음 또는 인지 과정에 대한 인식적 평가는 위의 목표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12) 과언이 '자연화된 인식론'이라는 개념을 현대인식론에 도입하였을 때에도 규범성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된 것인 만큼, 규범성이 다시 전적으로 선형적인 것으로 회귀한다면 이는 자연화된 인식론 자체를 위협할만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다.¹³⁾ 이 입장에 따르면 인식적 가치예를 들어, 참을 얻고 거짓을 피하라는 인식적 목표는 진화론적 목표로부터 파생적으로 정해지며,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믿음을 믿으라고 규정하는 인식적 규범도 그 정당성이 진화론적 가치에 기여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다.¹⁴⁾ 이러한 구도 내에서는 인식적 목표, 인식적 규범이 수단적으로 정의되어, 그 정당성은 비인식적 목표에 실제로 기여하는가에 대한 사실적 고찰에 의하여 전적으로 결정된다.

김도식 교수는 이에 대하여 “이는 ‘진리’나 ‘생존’이 가치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러한 가치를 경험적인 탐구로 어떻게 밝혀낼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묻는다. 이는 김교수가 인식적 가치를 다른 비인식적 가치에 의존하는 것으로 볼 경우, 자연화된 인식론이 성공하려면 이들 비인식적 가치까지도 사실적 탐구에 의하여 밝혀질 수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요구는 지나치다. 한 인식적 규범의 정당성이 다른 비인식적 가치에 기여하는가에 따라 사실적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보이고, 그 규범에의 합치 여부에 따라 개별적인 믿음과 인지 과정의 정당성이 모두 사실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인식론에서 모든 평가적인 문제가 전적으로 사실적 탐구에 의하여 완결적으로 주어진 셈이 된다. 진화론적 가치가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가, 또는 이 가치는 정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식론의 문제가 아니라 형이상학의 문제다. 자연화된 인식론은 인식론의 자연화, 인식적 규범의 자연적 탐구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이지, 철학의 자연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이 인식적 규범을 비인식적 규범에 의존하여 사실적으로 결정하려는 시도의 진정한 문제는 다른 데에 있다. 문제는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듯이 보이는 ‘참을 추구하고 거짓을 피하라’라는 규범이 다른 비인식적 가치와 조화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만약 참을 추구하고 거짓을 피하는 목표가 재생산과 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면, 참을 추구하고 거

13) 위에서 언급한 많은 과학철학자들을 보라.

14) 스티치Stephen Stich(1988)도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짓을 피하라는 인식적 목표가 진화론적 목표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주장이 비교적 순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비논리적이고 거짓인 믿음이 논리적이고 참인 믿음에 비하여 진화론적 목표와 더 잘 부합한다면, 상당한 진화를 겪은 우리 인간의 추론이 수많은 논리적, 확률적 추론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연구들은 이러한 견해에 심각한 장애를 제공한다. (Nisbett and Ross 1980; Taylor 1989) 이 상황에서 자연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을 추구하고 거짓을 피하는 것이 인식적 목표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여야 하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닌 듯이 보인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이 믿음이 비록 진리 추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지만 인식적으로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이는 도저히 가능하여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참을 추구하고 거짓을 피한다는 인식적 목표는 다른 가치에 파생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고유의 인식적 가치로 간주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그 정당성의 근거는 선험적 영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듯이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기현, 「자연화된 인식론과 ‘연결’」, 『철학적 자연주의』 한국분석철학회 편, 철학과 현실사, 1995.
- _____, 「자연화된 인식론」, 『언어, 진리, 문화 1』 김여수 외 지음, 철학과 현실사, 1997.
- _____, 『현대 인식론』, 민음사, 1998.
- 김도식, 「증거론이란 무엇인가?」, 『철학연구 36집』, 철학연구회, 1995.
- _____, 「전통적 인식론에서 자연화의 대상은 무엇인가?」, 이 책.
- Armstrong, D. M. (1973), *Belief, Truth and Knowle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yd, Richard (1982), “Scientific Realism and Naturalized Epistemology,” in Asquith and Giere eds., *PSA 1980* vol. 2 (East Lansing: Philosophy of Science Association).
- Dretske, Fred (1971), “Conclusive Reasons,”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49: 1-22.
- _____, (1981), *Knowledge and the Flow of Inform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Feldman and Conee, “Evidentialism”, *Philosophical Studies*, 1985
- Foley, Richard (1987), *The Theory of Epistemic Rational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oldman, Alvin (1967), “A Causal Theory of Knowing,” *The Journal of Philosophy* 64: 355-372.
- _____, (1967), “Discrimination and Perceptual Knowledge,” in Marshall Swain George Pappas eds., *Essays on Knowledge and Justification*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1979), “What is Justified Belief?”, in George Pappas ed., *Justification and Knowledge* (Dordrecht: D. Redidel).

- _____, (1986), *Epistemology and Cogn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ooker, Clifford (1974), "Systematic Realism," *Synthese* 26: 409-497.
- _____, (1987), *A Realist Theory of Scienc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Kornblith Hilary (1985), "Introduction: What is Naturalistic Epistemology?," *Naturalizing Epistemology*.
- Laudan (1987A), "Progress or Rationality: The Prospects for Normative Naturalism,"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24: 19-31.
- _____, (1987B), "Relativism, Naturalism and Reticulation," *Synthese* 71: 221-334.
- _____, (1990), "Normative Naturalism," *Philosophy of Science* 57: 44-59.
- Nisbett, R. and Ross, L. (1980) *Human Inference: Strategies and Shortcomings of Social Judg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Nozick (1981), *Philosophical Explanatio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Quine, W.V.O (1953), "Two Dogmas of Empiricism",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 _____(1969), "Epistemology Naturalized", *Ontological Relativity and Other Essays*.
- _____(1966), *Truth by Convention, Ways of Paradox and Other Essay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1960), *Word and Object* (New York: Wiley & Sons).
- Rescher Nicholas (1977), *Methodological Pragmatism* (Oxford: Basil Blackwell).
- Stich, Stephen, Reflective Equilibrium, Analytic Epistemology and the Problem of Cognitive Diversity, *Synthese* 74 (3): 391-415.
- Taylor, S. (1989) *Positive Illusions: Creative Self-Deception and the Healthy Mind* (New York: Basic Books).